



고등학생의 자가간호행위 영향요인

윤 영 미¹⁾ · 하 나 선²⁾ · 최 정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과정을 통하여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는 등 성장발달의 전환기에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내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며, 발달특성이 변화무쌍하고 성취해야 할 과제가 복잡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 정신, 사회적인 면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이 요구된다(김문실, 1997).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고등학생들은 학업문제, 가족내 갈등, 이성문제, 경제생활 등과 같은 상황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있어 건강의 가치를 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건강을 주로 정신, 사회, 심리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평생의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인 건강습관이나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가간호행위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개인의 건강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얻어진다(박형중, 1989; 이광숙, 1997). 따라서 습관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대한 사고와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건강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주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기경숙, 1984), 건강교육은 자가간호행위에 긍정적인 목적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이 건강관리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는 즉 건강관리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요하는 자가간호행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자가간호행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동기나 태도가 중재의 초점이 되어야 하며(Jacobson, Adler, Wolfsdorf, Anderson, & Derby, 1990), 이는 자가간호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의미부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자가간호행위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대상자의 특정 심리적 성향이나 사회적지지와 같은 개념들은 이런 쟁점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변인들로서(Anderson, 1990; Jacobson et al., 1990) 나름대로 실증적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어 환자들의 행위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자이며 사회적지지를 제공

주요어 : 자가간호행위, 희망, 사회적지지, 자가간호역량

1) 서울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profen@seoil.ac.kr)

2) 서울대학 간호과 부교수, 3) 서울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투고일: 2004년 12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3월 9일

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데, 김현숙(1998)은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를 높여 줌으로써 건강증진행위 및 자가간호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고, Resnick, Harris 및 Shew(1997)은 청소년의 부모, 가족관계와 지각된 학교 친밀감 즉 사회적지지가 모든 건강행위에 방어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Orem(1995) 또한 환경적 자원으로서 사회적지지 체계는 사회적 상호작용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가간호행위에 관여할 동기를 증진하여 자가간호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희망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체적인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개인이 질병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돕고 지쳐있는 신체와 정신에 힘과 활력을 주어 가장 짧은 시간내에 강력한 심리적 변화로써 동기체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으로, 자가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지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Hinds, 1988), Cauty(2001)는 청소년에게서 이러한 희망은 자가간호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자가간호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자가간호행위는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자가간호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데(Deneys, 1981) 이러한 능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Pender, 1982). 특히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이 발달되어 책임있는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자가간호역량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자가간호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eys, 1981, 이광숙, 1997). 그러나 이러한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 건강한 청소년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간의 행위는 개인과 환경 두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가간호행위를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인 요인 중 어느 한가지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평생의 건강습관 형성기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동기화되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가간호가 수행되어야 할 청소년에게 문헌고찰 결과 자가간호행위의 강한 동기화요인으로 예측되어지는 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서는 사회적지지, 개인적 요인에서는 희망, 그리고 자가간호역량과 자가간호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요인과 자가간호행위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살펴보고, 추가로 성(gender)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아울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가간호행위를 이해하며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자가간호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자가간호행위와 예측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한다.
-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성(gender)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용어정의

● 자가간호행위(Self care behaviors)

자신의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개인적으로 주도하고 수행하는 활동의 실제이다(Orem, 1985). 본 연구에서는 Deneys(1981)의 Self Care Practice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희망(Hope)

앞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는 그러한 소원, 미래에 대한 기원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힘, 또 자기존재를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하여 가치있는 삶을 지속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이다(김달숙, 이소우, 199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iller Hope Scale(1988)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말한다(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한국형 사회적지지 검사도구를 황윤경(199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 평가척도를 문성원(1990)이 번안한 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자가간호역량(Self care agency)

자가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학습된 인간의 복합적인 힘과 능력으로 조사, 판단과 결정, 산출작용을 하는 능력이다(Orem, 1985). 본 연구에서는 Deneys(1981)가 개발한 Self Care Agency instrument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가간호행위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의 1, 2, 3학년 남녀 고등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먼저 양호교사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일차동의를 구하고 본 연구자가 학교를 찾아 담임선생님과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이차동의를 구하였으며, 제공해준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참여한 대상자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17명을 제외한 2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4.5%이었다.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03년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방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연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20문항, 자가간호행위 12문항, 희망 40문항, 사회적지지 26문항, 자가간호역량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가간호행위 측정도구

자가간호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Deneys(1981)의 자가간호실천(Self Care Practice)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의 이행,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금연 및 금주의 실천 정도를 사정하기 위한 12문항의 5점 척도 도구이다. 평점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 1점,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5점을 주어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ery와 Deneys(198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0.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62이었다.

● 희망 측정도구

본 연구의 희망 측정도구는 Miller(1988)가 청소년의 희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Miller Hope Scale, MH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4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된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Miller(198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0.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3이었다.

●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한국형 사회적지지 검사도구를 황윤경(199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4문항의 도구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 평가척도를 기초로 하여 문성원(1990)이 번안한 45문항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26문항의 도구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하위영역으로는 정보적지지 5문항, 물질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5문항, 소속감지지 4문항, 정서적지지 5문항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이었다.

● 자가간호역량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가간호역량 측정도구는 Deneys(1981)가 청소년의 자가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Deneys Self Care Agency Instrument, DSCAI)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34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된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Deneys(198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0.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8이었다.

자료분석방법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고 2)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3)자가간호행위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가간호행위 영향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서 자가간호행위와 3개 개념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연구하였을 뿐 좀 더 많은 영향변인들이 조사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134명, 여학생 159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적분포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7명, 2학년 98명, 3학년 108명으로 3학년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179명(61.1%)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89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는 맏이가 128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막내(105명), 외동(31명), 중간(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대가족이 22명(7.5%), 핵가족이 270명(92.5%)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계신다가 274명(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버지만 계신다, 어머니만 계신다가 각각 5명(1.7%), 이혼 4명(1.4%), 별거 5명(1.7%)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6.8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3.9세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148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 중졸, 대학원졸, 초등졸, 무학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고졸이 191명(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졸, 중졸, 초등졸, 대학원졸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교육방식에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가 221명(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것을 부모님위주로 한다가 47명(16.1%),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가 24명(8.2%)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가장 많았으며, 하루 중 가족과 나누는 대화시간은 30분미만 정도가 94명(32.6%)로 가장 많았고, 30분 이상-1시간정도가 87명(30.2%), 2시간 이상이 39명(13.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정도가 38명(13.2%),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가 30명(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모두 표기한 결과 노래방을 간다가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이 전체의 20.3%, 시내배회가 19.2%, 오락실이 18.9%, 만화방이 11.3%인 반면, 도서관이 2.1%, 전시회 2.1%, 콘서트 3.8%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희망은 평균점점 3.65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는 3.89점, 자가간호역량 3.23점, 자가간호행위는 3.37점의 점수를 나

타냈다.

〈표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n = 293)

변수	평균(SD)	최소	최대
희망	3.65(.51)	1	5
사회적지지	3.89(.49)	1	5
자가간호역량	3.23(.45)	1	5
자가간호행위	3.37(.46)	1	5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예측변수인 희망, 사회적지지, 자가간호역량간의 상관관계는 .54 ~ .6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예측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자가간호행위와는 모두 .30 ~ .52의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n = 293)

	X ₁	X ₂	X ₃
X ₁ 희망			
X ₂ 사회적지지	.646**		
X ₃ 자가간호역량	.574**	.537**	
Y ₁ 자가간호행위	.372**	.264**	.529**

* p<.05, ** p<.001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자가간호행위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전 연구변수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어 다중공선성 검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고려하여 보았는데, 보통 VIF는 가장 큰 값이 5-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정하는바 본 연구변수에서는 VIF값이 5를 넘는 것은 없었다<표 3>.

〈표 3〉 다중공선성 검사 (n = 293)

variable	DF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희망	1	1.959
사회적지지	1	1.848
자가간호역량	1	1.604

자가간호행위 영향요인

선행연구에서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세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희망, 사회적지지, 자가간호역량의 세 가지 변수가 자가간호행위를 2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자가간호역량으로 자가간호행위를 28%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 표 4 〉 자기간호행위 영향요인 (n=293)

변수	β	F	P	R ²
자기간호역량	.196	113.27	.0001***	.280
희망	.045	2.80	.095	.007
사회적지지	-.037	2.29	.131	.006
		F=39.86	R ² =.293	

* p<.05, ** p<.001, *** p<.0001

자기간호행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에서는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간호역량과 희망이 자기간호행위를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서는 자기간호역량이 자기간호행위를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논 의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 정도는 평균점 3.37점(최저 1, 최고 5, 득점율(100점 만점기준), 67.4)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 정도가 득점율 67.8로 낮은 결과를 얻은 이광숙(1997)의 연구결과와, 15-16세 학생의 자기간호실천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62.0점으로 상당히 낮았다는 McCalb와 Edgil(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시기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적응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관리나 자기간호에 대한 관심이 취약해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과 사회풍토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건강유지 및 향상과 직결되는 건강교육제공을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학교의 환경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간호행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희망, 사회적지지, 자기간호역량은 주로 기존문헌에서 고찰한 자기간호행위의 영향요인 중 환경요인과 같은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이들 변인과 자기간호행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의 변인 모두 자기간호행위와 .26 ~ .6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희망이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희망이 단순한 생각이거나 느낌이 아닌 인식이나 행동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가능성을 상상하고 평가하며 느끼는 과정(김달숙과 이소우, 1998)이라는 주장과, 단일 행동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감정, 생각, 행동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가지게 된다(Brown, 1989)는 주장에 비추어볼 때, 희망 역시 청소년의 자기간호행위를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 또한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가 대상자들의 치료적 이행행위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김영옥, 1998) 사회적지지가 질병의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소년의 자기간호행위 역시 사회적지지의 정도에 따라 가변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자기간호행위 즉 대상자참여라는 바람직한 대처반응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변인인 희망, 사회적지지, 자기간호역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에 자기간호역량이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인 희망과 사회적지지의 추가로 2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간호역량이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점은 인간을 자기간호가 가능한 존재로 간주하고 자기간호를 시작하고 유지시키며 자기간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을 자기간호역량이라 하면서 자기간호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인의 속성이 된다고 한 Orem(1995)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매일 요구되는 자기간호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간호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Deneys(198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간호행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서는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간호역량과 희망이

〈 표 5 〉 성별간 자기간호행위 영향요인

(n=293)

변수	남학생			여학생			
	β	std. error	t	변수	β	std. error	t
자기간호역량	.137	.038	3.642***	자기간호역량	.219	.034	6.533***
희망	.070	.034	2.052*	상수	15.56	3.06	5.086***
상수	12.845	3.878	3.313**				
			F=17.381***				F=24.635***
			Adjusted R ² = .270				Adjusted R ² = .310

* p<.05, ** p<.001, *** p<.0001

자기간호행위를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간호역량이 자기간호행위를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희망을 잘 조합하여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남학생의 자기간호행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희망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자기간호행위 영향변인인 희망, 사회적지지, 자기간호역량을 예측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개 고등학교 1, 2, 3학년 남녀 고등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거친 도구를 사용하였고 일부도구는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적 통계, 상관관계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 정도는 평균평점 3.37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희망, 사회적지지, 자기간호역량간의 상관관계는 .54 ~ .65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예측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자기간호행위와는 모두 .30 ~ .52의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자기간호역량으로 이 변수가 자기간호행위를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나머지 예측변인인 희망과 사회적지지의 추가로 2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간호행위에서 남녀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간호역량과 희망이 자기간호행위를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간호역량이 자기간호행위를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자기간호역량임이 확인되었고 사회적지지, 희망 또한 고려해야 할 영향변인임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자기간호행위 증진을 위한 간호에 자기간호역량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보겠으며 이들 변인들간의 더욱 명확한 관계규명을 위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기경숙 (1984). *중학교 남학생들의 건강관리 실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달숙, 이소우 (1992). 암환자 간호를 위한 희망 측정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41-456.
- 김문실 (1997). 청소년의 건강증진. *대한간호*, 36(3), 6-15.
- 김영옥 (1998). 당뇨병환자의 자기간호행위 영향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8(3), 625-637.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성원 (1990). *인지적 평가와 사회적지지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중 (1989).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과 그 개선을 위한 제언. *학교보건*, 18, 7-12
- 이광숙 (1997). *청소년의 자기간호역량과 자기간호실천과의 관계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윤경 (1995).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L. A. (1990). Health-care communication and selecte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adherence in diabetes management. *Diabetes Care*, 13(2), 66-76.
- Brown, P. (1989). The concept of hope: implications for care of the critically ill. *Crit Care Nurse*, 9(5), 97-105.
- Canty, J. L. (2001). Life change events, Hope, Self-care agency in Inner-city adolescents. *J of Child and Adolesc Psychiatr Nurs*, 14(1), 18-31.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nd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eneys, M. J. (1981).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elf care agency i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Fery, M. A., & Deneys, M. J. (1989). Health and illness self care in adolescents with IDDM: A test of Orem's theor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2(1), 67-75.
- Hinds, P. (1988). The relationship of nurses caring behaviors

- with hopefulness and health care outcomes in adolesc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 21-29.
- Jacobson A.M., Adler, A.G., Wolfsdorf, J.I., Anderson, B., & Derby, L.(1990).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IDDM: Comparison of patients in poor and good glycemic control. *Diabetes Care*, 13(4), 375-381.
- McCaleb. A., & Edgil, A. (1994). Self-Concept and Self-Care Practices of Healthy Adolescents. *J of Pediatr Nurs*, 9(4). 233-238.
- Miller, J. F. (1988).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Hope. *Nurs Res*, Jan/Feb, 37(1), 6-10.
- Orem, D. E. (1985). *Nursing: Concept of Practice(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Orem, D. E. (1995). *Nursing: Concept of Practice(5th ed.)*. St. Louis, Toronto, Princeton: Mosby.
- Pender, N. J. (1982).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Norwalk, CT: Appleton-Century-Crofts.
- Resnick, M. D., Harris, K. M., & Shew, M. (1997). Protecting adolescent from harm, *JAMA*, 278(10), 823-832.

Factors Affecting the Self Care Behavior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Yoon, Young Mi¹⁾ · Ha, Na Sun²⁾ · Choi, Jung³⁾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3)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Self Care Behavior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9 to December 28, 2003.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93 students(134 boys, 159 girls), recruited from two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 that was modified by the investigator.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SPSS win 10.0 program was used. **Results:** The mean of total item score the Self Care Behaviors scales was 3.37, which was slightly low.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 Care Behavior, Hope, Social Support, and Self Care Agency($r = .30 \sim .65$, $p < .001$).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lf Care Agency was a predictor of Self Care Behavior and accounted for 28% of the variance. Self Care Agency account for 31% of the variance in Self Care Behavior in the high school girls. Self Care Agency and Hope accounted for 27% of the variance in Self Care Behavior in High school boys. **Conclusion:** Self Care Agency accounted for variance in Self Care Behavior in these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to increase Self Care Agency in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Self Care Behavior.

Key words : Self care behaviors, Hope, Social support, Self care agenc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Young Mi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49-3 Myoenmok-dong, Jungrang-gu, Seoul 131-702, Korea
Tel: +82-2-490-7516 Fax: +82-2-490-7225 E-mail: profen@seoil.ac.kr